

(인도자용)

행복의 역설 “팔복” 8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하다.”



마음열기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반동성에 성향에, 낙태반대론자에, 항상 화가 나 있고, 폭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려 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이 없지요.

‘나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라는 탄식과 하소연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속으로는 변화 받지 못한 채 겉으로만 전도한 다 애쓰고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긍휼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치, 문화, 경제 등 세상 생리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은 지나치게 판단하려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나쁜’이라는 수식어가 아이러니하게 따라 붙게 되는 것이겠지요.

인터넷 글 중에서

📖 위의 글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거나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당신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태복음 5:10-12

10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 10,11절에서 크리스천이 박해를 받는 이유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고, 두 이유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10절	의를 위해
11절	나(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	의=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어느 때이고 가장 부끄러울 때는 어느 때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당신의 삶에서 옳은 것을 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거나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일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냉대가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다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적용과 결단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뜨리는 모든 것, 나를 부수는 모든 것,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모든 것,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며 내게는 아무 자원이 없음을 알게 하며,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사 세상과 맞서게 하시기 때문이

다.’ 라고 말이죠.

반면에 우리는 평생 전혀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는 세상의 기준들을 인정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함께 미소 짓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내버려 둔다면, 불의에 뒤돌아서고, 정의를 따르지 않으며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길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다음 글은 톨스토이의 글입니다.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며 당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라. 나 역시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따르는 길이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노니. 나를 비난할 일이지 내가 가려는 그 길을 비난하지는 말라. 만약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술에 만취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겠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 당신이 결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